



08-06 (통권 184호)
2008.02.015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 對美 수출 비중, 지속적 하락

경영 노트

- M&A에 대한 5가지 오해

사회 트렌드

- 인스퍼트 제품
- 정신질환 진료환자 크게 늘어

저널 브리프

- 주목 받는 터키

洗心錄

- 임진마창(臨陣磨槍)과 임갈굴정(臨渴掘井)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 지난 7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여파에 따른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연 4.0%에서 동결하는 조치를 내림
 - 이러한 조치는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2%에 달하는 등 유로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
 - ECB는 지난해 12월 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에서 2%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IMF도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1.6%(2008년 1월 전망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러한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경기둔화 및 신용위기 여파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對美 수출 비중, 지속적 하락

- 관세청의 2007년 수출입동향 최종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20.3%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3.9% 증가에 그쳐 전체 수출증가율 14.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개도국의 경우 중동(1,972억 1천만 달러, 증감률 36.4%), 중남미(2,578억 달러, 25.2%), 중국(8,198억 5천만 달러, 18.0%) 등지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반면 선진국의 경우, EU(5,598억 2천만 달러, 13.7%) 및 미국(4,576억 6천만 달러, 6.0%)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2005년 14.5%, 2006년 13.3%에 이어 2007년에는 12.3%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후발개도국에 비해 약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M&A에 대한 5가지 오해

- (개요) 세계적 컨설팅업체 BCG는 최근 어느 때보다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M&A에 대한 오해 역시 커지고 있음을 지적함
 - 마이크로소프트의 야후 인수 제의와 대한통운, 현대건설 등 국내외 빅딜이 이어지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BCG는 뜨거워지는 관심만큼 M&A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5가지 오해를 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함
- (5가지 오해) 장기간에 걸친 M&A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던 사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M&A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오해	진실
사모펀드들은 높은 가격에 산다?	2003년 이후 사모펀드가 M&A를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은 22%인 반면 일반기업은 30%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함
높게 주고 사면 기업이 망한다?	지난 15년간 기업가치가 올라간 M&A의 프리미엄은 22%였으나 반대의 경우 프리미엄은 19%이었음
M&A는 규모가 크면 좋다?	100만 달러 이상의 M&A 거래가 100만 달러 미만 거래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파괴함. 특히 인수기업보다 피인수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기업가치 훼손은 더욱 큼
우호적 M&A가 좋은 M&A다?	M&A의 목표는 통합이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현금보다 주식이 낫다?	주식 또는 주식과 현금의 혼합거래 보다 현금에만 기반한 거래의 M&A 수익률이 훨씬 높음

- (시사점) M&A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 향상으로 경영자는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M&A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요함
 - 인수/피인수 규모, 인수가격, 인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득이 되느냐로 귀결되어야 함
 - M&A 트렌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업가치 향상의 큰 틀에서 치밀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인스퍼트 제품 인기

- ‘인스퍼트’(inxpert)란 내부(indoor)와 전문가(expert)의 합성어로서, ‘집에서 전문가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주는 생활 제품’을 말함
 - 가령, 밀가루와 설탕 같은 모든 반죽재료를 분말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이용하면, 간편하고 멋진 전문가 수준의 빵을 만들 수 있음
 - 주말에 머리 스타일을 바꿔 새로운 기분을 내고 싶다면 미용실에 갈 필요 없이 헤어 ‘인스퍼트’ 제품을 이용하면 됨. 머리를 말리는 동시에 요즘 유행의 헤어스타일로 만들어줌
 - 전문점 수준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 머신’, 집에서 간단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 등도 이에 해당됨
- 이러한 인스퍼트 제품은 집 자체가 주말 여가 장소인 바쁜 직장인들에게 ‘주말의 벗’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정신질환 진료환자 크게 늘어

- ‘06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정신질환자는 180만 7,762명으로 집계
 - 이는 ‘01년 134만 3,900명에서 5년 사이 35%나 증가한 수치임
-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는 질환은 치매·정신지체·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임
 - ‘01년부터 ‘06년까지 치매환자는 3만 1,158명에서 8만 8,804명으로 185%나 증가
 - 정신발육 지체환자도 5년 새 80%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우울증·조울증 등을 포함하는 기분장애 환자도 48% 늘어남
- ‘정신병원 가는 게 흉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데다 최근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난 것도 정신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

□ 주목받는 터키*

- 1996년과 2001년 두 차례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혼란했던 경제가 정치 안정과 함께 자리를 잡고, 2005년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터키를 향한 세계적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터키는 2002년 이후 매년 5% 후반을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2002년 11억 달러에서 2006년 200억 달러로 급증
- 이처럼 최근 터키가 투자 유망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 경제의 안정, 풍부한 내수 시장을 들 수 있음
 - 지정학적 위치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터키를 거쳐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정치 안정에 기반 둔 경제 안정 : 2001년에 집권한 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연평균 70~140%였던 물가 상승률이 10% 이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가 안정되고 있음
 - 풍부한 내수 시장 : 7,500만 명이라는 큰 인구는 풍부한 내수시장 제공과 함께 유럽의 생산기지로서도 손색이 없음
- 터키의 경우, 세계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 불안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있어 철저한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정치 불안 지속: 최근 들어 히잡(이슬람 전통 스카프) 착용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원리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군부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정치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테러 불안 상존: 터키에서는 1984년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생겨난 무장단체 PKK(쿠르드노동자당)에 의한 테러는 물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절대 싸지 않은 인건비: 터키는 임금의 37%가량이 사회보장세이며 이중 21%가 회사 부담이고 소득세도 회사부담인 등 인건비 부담이 큼
 - 심각한 관료주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관료주의가 심각함

* 이 글은 『매경ECONOMY』(2008.02.2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임진마창(臨陣磨槍)과 임갈굴정(臨渴掘井)

춘추 시대, 노나라 소공은 무능한 정치력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 제나라로 도망하였다. 어느 날, 제나라 경공이 노나라 소공에게 말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노나라 소공이 대답하였다. “저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나라 경공은, 젊은 소공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므로 장차 어린 군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곁에 있던 재상 안자에게 물었다. “만약 소공이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가 현명한 왕이 될 수 있겠소?”

안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물에 빠진 후에야 물에 빠진 원인을 알고자 하고, 길을 잃을 다음에야 길을 묻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위급함에 처하여 부랴부랴 무기를 주조(臨陣磨槍)하고, 목구멍이 막히고서야 비로소 우물을 파는 것(臨渴掘井)과 같아서, 아무리 빠르게 무기를 만들고 우물을 파더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는 신정부 출범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둘러싸여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은 경제계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새해 우리 경제는 유가 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신년사에서 “새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의 하방위험 등 만만치 않은 대내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후회하기보다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는 방법은 단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경쟁사보다 더 빨리 고객에 대해 배우는 능력이고,
둘째는 경쟁사보다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다.”

- 잭 웰치(1935~) : 前 GE 회장